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44 호 | The Seungni Shinmun |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승리절 맞아 남북전쟁 막는 이긴자의 각별한 사랑에 감사하자

이긴자는 참부활자요 거듭난 자 전지전능 되찾아 행사하는 무적장수

매년 10월 15일이면 승리제단에서 승리절이라는 절기 행사를 지낸다. 승리절의 주인공은 세상에서 씨름이나 권투를 잘해서 상대방을 힘으로 이긴 이긴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긴 이긴자이다. 나 자신을 이긴 이긴자라고 하니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꺾고 절제하는 데 성공한 사람 정도로 속단하기 쉬우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긴자의 눈에서 하나님을 만드는 살마광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긴자가 찾아낸 '나'의 정체

승리제단의 단상에 계신 이긴자는 나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의 정체를 인류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알아냈는데, 나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 즉 '나' 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이다. 이는 4대 성인으로 불리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불경에는 무아(無我)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든지 성경에는 나를 항상 버리라고 하지만 꼭 집어서 '나' 라는 것이 마귀라고 말하지 못했고, 더구나 '나' 를 버리는 비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조차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교도 극기승자천하승(克己勝者天下勝)이라고 말하면서도 극기(克己)의 대상이 되는 '나' 라는 것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온전한 생각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자 결국 인간 자신의 사유 자체가 인간의 무지(無知)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갈파했다.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이긴자란 자신 속의 '나' 라는 마귀를 이기고 제거한 하나님이다. 불경에는 생미륵불이 조(曺)씨 성으로 출현한다고 하고 성경에서는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희성(熙星)의 이름으로 구세주가 강림한다고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하고 있다.

이긴자 조희성님은 인간을 정의하기를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의 병존체다."고 밝히는 동시에 "마귀가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은 상태, 즉 마귀 영옥(靈獄)에 가둬놓고 스스로를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나' 라는 주체의식이라는 마귀가 생각하고 행위를 하는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소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하지 못하고 늙고 병들어 결국은 죽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억조창생의 수많은 사람을 죽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을 죽여 왔던 것이다."고 마귀의 비밀을 캐내어 발표함으로써 비로소 인류가 '나' 라는 마귀에게 속아서 신(神)도 아니요 동물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세뇌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인류를 마귀가 이름을 지어준 대로 '사람' 이라고 하지 말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하나님이다' 고

2면에 계속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7〉

"신을 분별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즉각 즉각 분별하지 못하면 그 생각이 점령해 버리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고 가르쳐주었으면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 마귀의 생각인고로 죄가 된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고로 여러분들이 초초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의 움직이는 것을 그때 그때 기도로써 부수면서 내 눈에 띄는 모든 것을 내 죄로 여기고 눈물로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단소식

새식구 100일 잔치

백일잔치 케이크 촛불을 끄는 송기태 님

본부제단은 지난 9월 20일 새식구 송기태 님의 백일잔치를 열어 축하해 주었다. 송기태 님은 6월 7일부터 21일공부를 시작하여 9월 15일까지 100일을 마쳤다.

송기태 님은 김주호 승사와의 인연으로 승리제단에 오게 되었다. 김주호 승사가 해동(주)에 근무할 때 송기태 님은 봉제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해동 직원이었던 김 승사와 업무상 자주 만난 것이 전도로 이어지게 되었다. 사실 승리제단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해 세인들은 매우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송기태 님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김주호 승사와 자주 대화하고 또 승리제단의 진리를 어느 정도 접하게 되다 보니 조금씩 승리제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승리제단의 진리가 대단히 합리적이며, 과학적 바탕 위에 이치에 맞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간에 접해 본 기독교 불교와 같은 타 종교보다도 훨씬 우월한 진리이며, 무엇보다도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송기태 님은 계속해서 배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며 백일잔치 소감을 밝혔다.

윤봉수 회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송기태 님께서 끝까지 정진하여 꼭 영생을 얻기를 바란다고 화답해 주었다. 송기태님은 21일공부를 마치고 바로 보광패션 공장장으로 취업하여 원세양 사장님을 도와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송기태님의 승리를 기원한다.*

2017 세계종교문화축제를 다녀와서

각 종교 인류 평화 필요성 공통 인식
실현방법 구체적 제시 못해 아쉬워

지난 9.13.~9.16까지 전주시 풍남문 일대 한옥마을 경기전광장에서 4대 종교(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문화마당이 공연, 영화, 노래 등 다채로운 종교문화행사로 펼쳐졌다. 9.15.(토) 오후 2시에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중앙청부 2층에서는 세계종교포럼이 열렸다.

포럼의 주제는 세계 속 종교의 역할로 '인류의 평화' 였다. 4대 종교 지도자로 김해봉(원불교 전북교구장), 백남운(전북기독교연합회 종교문화대표), 성우(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장), 김선태(천주교 전주교구장)님이 대표 발언을 하였다.

발언의 요지는 모두가 인류평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인식을 같이한다는 것이었다.

종교문화축제를 통한 진정한 대담의 장,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4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포럼일 것이다.

'인류의 평화' 라는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4대종교 대표들이 그 구체적 방안과 실천 세부사항들이 봇물 쏟아질 듯 쏟아지며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잔뜩 기대를 안고 귀를 기울였지만, 그저 4대 종교가 목표와 지향점을 공통으로 인지한다는 말만 할뿐 포럼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방안과 철학은 언급하지 못하는 점, 참으로 아쉬웠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테러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테러와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종교 간의 불화이다.

오랜 세월동안 종교가 존재해 왔고 그 리더인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의 역할과 책무가 인류 평화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종교인들이 제 역할과 책무를 과연 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렵게 만든 귀한 자리가 아닌가! 이러한 대대적 행사의 뜻 깊은 취지와 목적이 구현되지 못한, 진정성이 결여된 단순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사라고만 기자의 눈에 비치어 아쉬웠다.*

취재 김주호 기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